

시크릿박스

최영선

“냄새가 심해도 눈은 호강한다. 그치?”

소라가 휠체어를 멈추고 말했다.

자신의 무릎에 떨어진 은행잎을 옆에 있던 석호에게 뿌리려던 참이었다. 가로수는 바람에 몸을 털며 마른 잎을 떨어뜨렸다. 아이 참. 소라가 던진 은행잎을 잡으려고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던 석호가 아쉬워했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뒤쫓아 걸었다.

석호가 뒤돌아보며 내게 소리쳤지만 알아듣기 어려웠다. 빨리 오라는 것 같기도 하고, 소라의 짓궂은 장난을 일러바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헛바람을 쏘아낸 후에야 겨우 몇 마디를 쏟아내곤 했는데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말이 되어 나오질 않았다. 이어지는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흐름을 알아차릴 수는 없었다. 나는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무안할까봐서다. 지레짐작으로 눈치껏 소통하다보면 큰 문제될 일이 없지만 간혹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는 뇌병변장애인이었고 언어장애가 있었다.

곰보빵? 먹고 싶다고? 나는 인근 제과점에서 산 곰보빵 한 점을 떼어 입에 넣어줬는데 빵을 뱉으며 아니, 아니고. 공. 부. 방을 갈 거라고요. 못 알아 들으면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봐도 좋다면 나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입에서 ‘아이, 참’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했다.

소라가 휠체어 속도를 높여 석호의 휠체어에 살짝 부딪히자 그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석호의 반응이 재밌었던지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돌진했다. 그만 좀 해. 그들이 넘어질까 싶어 소리쳤지만 내 소리는 커켜이 쌓인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미혼인 나는 결혼 1년 차 부부인 그들의 은밀한 파트너였다. 아니, 소라와 석호는 고객이고 나는 고용인에 가까웠다. 그 표현은 내 자신에게 둘러대는 일종의 소명의식 같은 주문이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긴밀히 의논했던 몇몇 사람들의 의견은 서로 달랐다. 유럽 선진국에서나 통할 일이며, 자칫 범죄자 취급을 당할지 모른다는 인권활동가의 걱정을 들은 적 있으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수습하면 될 일이라며 강권한 김 사장 같은 사람도 있었다. 누구나 두려워 할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선동적인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었던 까닭은 딱히 인권의식이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친밀한 사람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유약한 성격 탓이었다.

소라를 처음 만난 건 내가 장애인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부터다. 골형성부전증을 앓고 있는 그녀는 중증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나는 일 년 남짓 노인요양병원에서 여섯 명의 노인을 돌봐왔다. 일 하는 동안 남은 생을 조금씩 떼어 주는 기분이었다. 2명의 노인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모두 아침식사 식판을 놓을 때 발견됐다. 대부분 노인들은 밥 냄새가 병원에 퍼질 때 짬 바스라질 것 같은 몸을 미세하게 뒤척였지만 죽은 이는 잠을 깨우려고 몸을 흔들면 물에 젖은 가랑잎처럼 무겁게 뒤집혔다. 죽은 이의 빈 병상의 침대시트를 갈 때면 짝고 강렬한 공포를 느꼈다. 요양병원을 그만두고 싶었다. 마침 남자병동에서 일하던 탈북여성이 장애인활동지원을 해보라고 권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사십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실습을 마치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

었다.

중개기관에서 소개한 소라는 서른다섯 살의 여성이었음에도 일곱 살 정도의 체격이었고 얼굴은 젖살이 빠지지 않아 포동포동했다. 전동휠체어 위에 있는 그녀는 그릇에 놓인 방울 토마토 같았다. 힘주어 만지면 터질 것 같았으며 부딪히면 언제라도 굴러 떨어질 것 같아 위태했다. 나는 무릎을 굽히고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녀의 볼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곤 자신의 볼에서 내 손을 떼어냈다. 허락 없이 몸에 손대지 마세요.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에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소라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질러진 신발을 나란히 놓고 아침식사를 간단히 준비한 뒤 욕조에 물을 받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의 옷을 벗겼다. 태양과 공기와 바람에 노출된 적 없는 어린 아기의 속살처럼 부드러운 살갗이 드러났다. 아기의 기저귀를 갈 듯이 짧은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았는데 검고 풍성한 음모가 드러났다. 나는 입을 벌린 채 그녀의 다리를 놓쳤다.

가자미 말린 냄새가 풍기는 노인의 갈색 음부에 익숙한 나는 파우더 향이 나는 그녀의 몸이 낯설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익숙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미간이 좁아졌다.

소라는 화장대 위에 놓인 스킨과 로션을 발랐다. 그녀가 화장하는 동안 나는 옷장을 열었다.

“분홍색 프릴이 달린 원피스요. 베이지색 레깅스는 두 번째 서랍.”

그녀는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팬티와 외출복을 스팀다리미로 다렸다. 옷에 부착된 상표를 보니 아동복 상표였다. 신발은? 빨간 캔버스화요. 매일 저녁 무엇을 입을지 미리 생각해 둔다는 소라는 나의 질문에 즉각 대답했다. 신발장엔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신발처럼 흙이나 먼지가 묻어있지 않았다. 땅에 닿을 일이 없었던 앙증맞은 구두와 운동화를 하나씩 만져보았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동요의 한 소절이 생각났다. 어쩐지 입에 맴돌 것 같았다. 음, 음, 음, 허밍으로 중얼거리며 신발의 먼지를 털고 있는데 소라의 전화벨이 울렸다. 아이라인을 그리던 소라는 내게 대신 전화를 받으라고 했다. 석호였다.

“해물볶음밥 집 앞에 있다고?” 전화기 너머 그의 말을 알아듣기 곤란했다.

“아이, 참. 해.음,복,금,방.” 그는 음절마다 띄엄띄엄 힘주어 말했다.

“여기에 그런 집이 있어?” 나는 어리둥절했다. 소라가 사는 임대아파트 상가에는 중국집이 없었다. 소라가 내 손에서 전화기를 넘겨받았다.

깔깔깔. 소라는 화장대에 엎드려 손으로 광광 내리치며 웃었다. 알았어. 거기서 기다려. 소라는 미처 다 웃지 못했다는 듯 휴대전화를 끄고 나서도 한참 웃었다. 어디야? 뭐야? 왜?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목음으로 물었다.

“언니, 석호 씨가 행운복권방 앞에서 기다린대요.”

그날 아침 소라는 석호와 함께 대학로로 출발했다. 열 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소라는 복권방 앞에 정차해있는 석호의 휠체어 뒤에서 그의 목을 살짝 건드렸다. 석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젓히고 온몸을 버둥댔다. 소라와 내가 아파트 출입구에서 상가 쪽으로 나오는 걸 봤으면서도 늘 그런 식이었다. 석호의 몸은 기쁨과 놀람을 표현하는 데 특화된 것 같았다. 그녀의 장난은 늘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장애인 극단 ‘몸’의 배우였고 석호는 연출자였다. 내가 그녀의 활동지원을 시작한 즈음 ‘불편한 연극’이라는 제목의 공연을 앞두고 있었다. 대사가 거의 없는 음악극 형태였다.

연습실에 도착하자 뷔페를 겸한 결혼식 뒤풀이나 회갑연 등에서 흔히 들던 바흐의 미뉴에트가 흘러들었다. 나는 객석에 앉아 외투를 벗어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의미 없이 손가락을 까딱였다. 중증장애인 배우의 연기는 무엇을 표현하는지 알 수 없었다. 때론 괴성을 질렀고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얼굴 근육은 어떤 표정을 지으려고 했는지, 무엇을 표현하려 했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의 표정 연기는 압도적이었다. 상대가 무안할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던 모습이 본래 그녀의 것이 아닌 듯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았다. 그녀의 뒤에 서 있던 다른 배우가 아기인형을 빼앗자 그녀는 바닥을 뒹굴며 절규했다. 그녀의 연기를 보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소라에게 다가가 얼굴을 닦아주었다.

좀 쉬었다 갑시다. 감흥이 가지지 않았는지 소라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고작 연습이잖아?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다. 배우로서 자질이 없나 봐요. 무대 위에서 배우가 과하게 감정에 몰입하면 관객의 뒤통이 사라지거든요.

공연 하루 전날 나는 두 사람과 소라의 집으로 향했다. 두 개의 휠체어를 앞세우고 속도에 맞춰 걸었다. 주황색 가로등 불빛에서 노란 은행잎이 날갯짓 하는 늦가을 밤이었다.

활동지원을 마치고 막차를 타고 집에 들어오니 구린 냄새가 퍼졌다. 미처 신발 바닥을 닦지 못한 것이다. 소라의 집 앞에서 쑥스럽게 웃던 석호가 생각났다. 은행알갱이가 휠체어 바퀴에 짓이겨져 냄새가 날 텐데, 그들의 공간을 누추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하며 내 신발 밑창에 붙은 과육을 떼어냈다.

다음 날, 소라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석호는 이미 극장으로 출발한 뒤였다. 그녀는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 일종의 징크스인데 공연하는 날 아침식사를 하면 어김없이 배변 실수를 한다고 했다. 우리는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출발했다. 아침인데도 전날 밤보다 어두웠다. 낮게 주저앉은 구름이 조금만 힘을 주면 비를 쏟아낼 것 같았다. 속도를 좀 내야겠어. 나는 서둘렀다. 소라의 휠체어를 쫓아 뛰다시피 걸었다. 마른 땅인데도 물기를 머금은 낙엽 때문에 미끄러웠다. 나는 배수구 덮개를 밟고 휘청했다. 숨이 차고 어지러워 잠시 앉아서 쉬었다. 시야에서 멀어지는 소라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졌을 때, 그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괜찮겠어요?”

전동보조기구 대리점 김 사장은 커피믹스를 건네며 말했다. 괜찮을 리 없었다. 소라의 휠체어 배터리는 방전됐고, 횡단보도에서 멈춰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검정색 가죽 소파에 몸을 묻고 있는 소라의 표정을 살폈다.

“오늘 공연은 다른 배우가 하면 돼요. 더블캐스팅이거든요.”

소라는 별일 아닌 듯 어깨를 으쓱했다. 김 사장은 급속 충전기로 휠체어 충전을 마친 뒤, 부속품을 점검했다. 나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어서 배가 고팠다. 소라가 자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자 김 사장은 중국음식점에 주문했다.

배달통 뚜껑이 열리자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퍼졌다. 자장면을 비벼서 잘게 썬 다음 소라의 입에 넣어줬다. 활동지원하면서 가장 참기 힘든 건 음식 앞에서 허기를 참는 일이었다. 한 달이 지나도 적응하기 힘든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소라는 먹는 속도가 느렸고, 나는 그녀가 넘기기도 전에 턱밑에 젓가락을 대고 기다렸다. 김 사장은 짬뽕을 다 먹고, 만두튀김

반 점시까지 비우고 휠체어를 닦았다.

소라의 식사가 끝나고 내 뒤의 자장면을 비비려고 하니 면발이 붙어 서로 달라붙어 있었다. 어느새 김 사장은 내 앞에 서서 굽어보더니 내 그릇을 빼앗아 다른 그릇과 함께 치웠다. 키가 크고 구부정한 그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데도 행동이 재빨랐다. 눈앞에서 먹잇감을 놓친 짐승처럼 나는 화가 났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 말은 수리를 맡길 때 휠체어를 만지면서 한 소리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인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였다. 그는 그릇에 담긴 남은 음식물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그릇을 씻어서 비닐봉투에 담았다. 십 분이 채 지나지 않아 배달원이 자장면 한 그릇을 내 앞에 놓았고 김 사장이 담아놓은 그릇을 가져갔다. 자신의 말이 맞지 않느냐는 듯 주먹으로 자신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의 친절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50세가 되도록 낯선 남자의 친절에 어떻게 응수해야 하는지, 내 마음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타인을 내 삶에 들여놓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

100석 남짓한 극장은 관객들로 가득했다. 무대 바로 앞엔 휠체어를 탄 관객이 자리를 차지했다. 앞뒤 좌석의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다. 조명이 꺼지고 연극이 시작되기 전까지 객석의 사람들은 소란스러웠다. 마치 연극배우들은 잔칫집에서 밀려난 주인공 같았다. 연극이 시작되기 전, 한 스텝은 두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며 외쳤다. 스텝이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도중 객석을 밝히던 조명이 꺼지고 무대조명이 켜졌다. 스텝은 잔걸음으로 무대를 내려왔고, 실수를 눈치 챈 관객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괴성을 지르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라의 출산 장면이었다. 남자가 땀에 젖은 여자의 머리를 매만지고 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위에서 긴 팔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환희에 찬 표정을 지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휠체어 바퀴로 동그란 동선을 그리며 움직였고 아기의 탄생을 온몸으로 축하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다 갑자기 낮고 짙은 음색의 첼로연주 음악으로 바뀌었고 무대 조명이 어두워졌다. 침대에서 일어난 여자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아기를 꼭 껴안았다. 여자는 소라였다. 옆에 서 있던 검정색 정장 입은 두 명의 배우가 소라의 가슴에 안겨있는 아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소라는 강하게 저항했다. 객석에서 바라 본 그녀는 맛있게 자장면을 먹던, 석호에게 장난을 걸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표정을 지었다. 내 뒷줄에 앉아 있던 관객은 “아기를 입양 보내나봐” 라던가, “애초에 아기를 낳지 말았어야 해” 말하며 탄식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저런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만들었는지 몰라.” 라며 속삭였는데 나는 그들을 향해 부러 기침소리를 냈다.

음악이 멈추고 배우들은 객석을 향해 엄중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소라와 눈이 마주쳤고 경연쩍은 표정으로 소라의 가방을 끌어안았다. 페이드아웃되면서 객석은 잠시 숨을 죽였다. 다시 조명이 켜지고 출연진과 스텝이 무대에 나란히 섰다. 커튼콜에서 석호가 등장할 때 박수와 환호 소리가 요란했다. 앞줄에 있던 장애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꽃다발을 무대 위로 던졌다. 석호의 활동지원사는 꽃다발을 주워 석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서너 개는 다시 떨어졌다. 석호는 자신의 꽃다발 몇 개를 소라에게 안기고 손을 잡았다. 관객들은 일제히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휘파람을 불었다.

관객들은 객석을 떠나지 않고 뒤풀이 장소로 함께 이동했다. 소라는 무대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 참석했고, 석호와 함께 테이블을 돌며 인사했다.

“오늘은 술을 마시고 싶어요.” 소라는 말했다.

나는 소라의 가방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꺼내 맥주잔에 꽂았다. 그녀는 500CC 두 잔을 마셨다. 금요일 저녁 활동지원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소라는 술에 취해 동료배우와 함께 눈을 감고 노래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은 듯 보였다. 뒤풀이를 하던 관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비웠고 배우들과 활동지원사만 남았다. 나는 그들의 노래를 감상하던 석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언제 끝나요?” 끝내 달라는 요구였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석호는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듯 눈에 힘을 주며 말했다. 석호는 띄엄띄엄 말을 하려면 노력이 필요했다. 그는 스텝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나는 혹여 소라가 기분 상황이 싫어 그들과 거리를 두고 바깥쪽을 쳐다보았다.

그날, 근무시간을 초과했음에도 소라와 석호의 곁을 지킨 게 발단이 되었을까? 아니면 그 전에 소라에게 빨대를 건네지 말았어야 했을까? 소라는 석호와 나란히 휠체어를 타고 가다 멈췄고, 그림자를 밟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 있는 나를 불렀다. 무슨 말을 하려고 머뭇거리는 소라를 향해 석호는 손을 내저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말리는 제스처라고 생각했는데 소라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꺼냈다. 미리 연습한 것처럼 담담한 말투였다. 소라는 자신과 석호의 섹스를 도와달라고 했다. 무엇을 도와달라고? 나는 ‘섹스’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아차렸음에도 재차 물었다. 그렇게 화내지는 말고요. 언니. 소라는 애원하듯 거듭 요청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불을 끌 수도 없어요. 소라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간절하게 들렸지만 그들을 거리에 두고 돌아섰다. 왠지 말려들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나는 그들의 별거벗은 모습이 떠올랐다. 동시에 김 사장의 절뚝이는 다리가 생각났다. 뜬금없는 생각을 없애려고 고개를 털었다. 그럴수록 허공에 흔들리는 김 사장의 오른쪽 종아리의 불거진 힘줄과 코듀로이 바짓단 밑에서 가늘게 흔들리는 왼쪽 발이 아른거렸다. 그날 나는 자장면을 먹다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잠시 그를 응시했던 것도 같다. 김 사장은 몇 살이나 먹었을까? 결혼은 했을까? 맥락 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마침 환승역에 정차한 전철이 문을 개방한 채로 출발하지 않았고 나는 서둘러 내렸다. 어디로 가야할지 정하지 않은 채였다. 환승하려는 사람들 무리에 섞여 걷다가 전철을 탔다. 제법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승객들로 붐볐다. 문이 닫히기 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짧은 키스를 했다. 서둘러 내린 여자는 남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전쟁터에 끌려가는 연인을 보내는 영화의 한 장면과 겹쳤다. 고작 그녀의 집 근처에 데려다주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뿐일 텐데 그 짧은 헤어짐이 그렇게 안타까운 감정일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과잉감정이라고 생각했다. 잠들기 전 통화할 테고, 긴 잠을 자고 나서 다음 날 다시 만날 수 있는 연인이 짧은 이별을 견딜 수 없는 건 어떤 두려움일까? 궁금했다. 열차가 출발하자 여자와 헤어진 남자는 다리를 떨며 휴대폰을 들었다. 그는 손톱의 거스러미를 물어뜯으며 연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듯 했다.

내가 도착한 곳은 김 사장의 가게였다. 입간판 앞에 서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실내엔 조명이 켜 있었고 그의 실루엣이 보였다. 한쪽 어깨가 널뛰듯 움직였고 가게 이쪽저쪽을 댕걸음으로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경쾌해보였다. 가게 옆 카페 스피커에서 보사노바풍의 노래가 흘렀다. 음악과 그의 일하는 모습이 어울렸다. 스텝을 밟는 듯 보이는 그를 지켜보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삼일 동안 매일 김 사장 가게 앞을 배회했다. 소라를 소개한 중개센터 직원에게 의논해보려고 생각했지만 조심스러웠다. 그렇다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놨다가는 괜한 오해를 살 것 같았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김 사장 가게 문을 열었다.

“휠체어에 문제가 있나요?” 가게 안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던 그와 눈이 마주쳤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동시에 대답했다.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가게 문을 다시 열고 불을 켰다. 나는 소파에 앉자마자 생각을 다듬지 못한 채로 말을 꺼냈다. 다른 사람의 성생활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동공이 커졌고 찬물을 들이켰다.

“직업적인 고민인가요?” 컵볼이 빨개진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어쩌면.” 나는 대답했다.

“돈이 급하세요?” 그는 찡그리며 질문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커피 잔을 손톱으로 긁으며 대답했다.

그는 의자 깊숙이 등을 대고 팔짱을 꼈다. 그제야 그가 성매매로 오해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는 테이블에 떨어진 커피를 냅킨으로 정성스럽게 닦았다. 수리공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늘고 흰 손이었다. 내 눈을 의식했는지 한때 사법시험을 준비했노라고 했다.

나는 결혼한 적 없으며 섹스는 내 고민이 아니라고 했다. 선생님 문제 같은데요? 그는 넘겨짚으며 말했지만 장난기가 역력한 눈빛이었고 기분 나쁘지 않았다. 나는 소라의 제안을 털어놓았다. 문제가 생기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도 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수습하면 됩니다.” 김 사장은 불안정하게 일어서서 내 등을 토닥였다. 그는 손으로 턱을 괴고 나를 응시했다.

“꼭 그런 몸으로...” 나도 모르게 말이 새어 나왔다.

“사랑하잖아요. 두 사람은.” 김 사장은 조금 흥분한 듯 했다.

그는 휠체어 수리를 마치고 공구함으로 가서 물건을 꺼냈다가 다시 담았고 컴퓨터를 켰다. 서류철을 꺼내 넘기다가 소리 나게 덮었고 가끔 내 쪽을 바라봤다. 그러곤 티브이를 켰다. 드라마 여주인공은 남자를 껴안고 흐느꼈다.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럴고 그런 내용이었다. 영화채널에서는 한 남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데 뒤늦게 출동한 경찰이 그의 가슴에서 신분증을 꺼내는 장면이었다. 채널은 5초에 한 번씩 바뀌었다. 나는 그의 움직임을 살피면서도 그의 반대편으로 돌아앉아 창밖을 주시했다.

“같이 가 봐요.” 먼저 말을 꺼낸 건 나였다. 소라와 석호를 돕겠다고 마음먹고 난 뒤였다.

그의 가게 인근, 낡은 상가건물 2층엔 간판이 없었고 유리창 시트지로 성인용품점이라는 다섯 글자가 보였다. 내부는 생각보다 환했다. 진열장에 전시된 물건은 간혹 기이한 성기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있었으나 대부분 색깔이 예뻐고, 재질은 부드러웠다. 더럽고 누추한 외양과 달라 한결 마음이 놓였다. 사용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성용 dildo를 구입해보는 게 좋겠다는 김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가게 주인의 설명을 듣고 사용방법을 익혔다. 주인은 우리 두 사람의 눈을 살피지 않고 장난감을 팔 듯이 여러 개를 동시에 작동 시켜놓고 하나하나 장단점을 설명했다. 호기심에 구입하기엔 가격이 부담스러웠다. 나는 보습 윤활제와 콘돔, 얇은 고무장갑을 구입했다. 입구에 들어설 땐 그곳을 벗어나고픈 생각부터 들었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익숙해졌다. 그동안 내 몸의 한 부분을 누락시킨 채 살아온

것 같아 괜히 내 몸에 미안해졌다. 신상 설명을 듣던 김 사장은 진열대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는 신이 난 게 분명했다.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이셨구나.” 나는 웃으며 흘겨봤다.

그의 유쾌한 웃음소리는 나의 속스러움을 거뒤희리는 듯했다. 어깨에 내려앉은 두려움과 걱정이 그의 걸음걸이에 맞춰 들썩였다. 순간 차가운 바람이 우리 두 사람을 짧게 훑고 지나갔다. 그는 휘청거리며 쓰러지는 시늉을 했고 나는 그의 팔목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힘에 부쳐 주저앉았다. 쇼핑백에서는 방금 산 물건이 바닥에 쏟아졌고 우리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웃었다.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배꼽 빠질 정도로 웃어본 지, 참 오래되었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날짜를 잡았다. 석호의 짐은 간단했다. 김 사장과 나는 그의 이사를 도왔다. 전등을 리모컨과 연결하고 침대에 계단을 설치하고 욕실에 손잡이와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석호에게 필요한 설비 공사는 김 사장의 몫이었다.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의 일상은 여느 부부와 다르지 않았다.

그들의 섹스를 돕기로 한 날, 김 사장이 내게 문자를 보냈다. ‘공기가 맑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튼튼히 챙겨먹으라’는 안부였다. 그는 긴장한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소라의 밥 먹는 시간이 더뎌져서 배가 몹시 고팠다. 매뉴얼을 어기고 두 사람을 식탁 앞에 앉혀둔 채 먼저 밥을 먹었다. 두 사람은 중개자에게 나를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나는 휴대폰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신고를 재촉했다. 우리 세 사람은 한바탕 웃었다. 유리창엔 우리들의 입김이 붙어서 물방울이 맺혔다. 희뿌연 창밖의 앙상한 나뭇가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번져 한 폭의 수묵화 같았다. 기온이 떨어지는 초겨울이었는데도 따뜻하고 안락한 기분이 들었다.

식탁을 치우고 욕조에 소라의 몸을 담갔다. 나는 석호에게 함께 들어가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욕실에 세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란 불가능할 정도로 좁았기 때문이다. 예의상, 예의상. 소라가 나를 대신해 말했다.

나는 그들이 결혼선물로 받은 바디 샤워젤을 개봉해서 그녀를 몸을 닦았으며 여성청결제로 음부를 씻겼다. 몸을 감싸는 목욕타월로 그녀를 감싸 안아 침대에 눕혔다. 이 날을 대비해 구입한 베이시색 레이스 속옷을 갈아입혔다. 미리 뿌려둔 아카시아 향수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수제용 향초 세 개에 불을 붙이고 전등을 켰다. 너무 컴컴한 것 같아 침대머리에 있는 조명등을 켜는데 소라의 뽀얀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다. 다음은 석호를 씻길 차례였다. 나는 석호의 속옷을 벗기면서 눈을 질끈 감았다. 눈치 빠른 석호는 발을 버둥대며 스스로 속옷을 벗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의 다리를 지그시 누르고 탈의를 마친 뒤 욕조로 안내했다. 소라보다 10살이 어린 이십 대 청년의 둔중한 어깨가 드러났다. 내가 들을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다. 석호는 알몸으로 기어서 욕실로 향했다. 등 뒤엔 크고 작은 상처 아문 자국이 남았다. 팔을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움직였다. 어깨가 넓었고 단단한 잔 근육이 붙어 상체가 다부졌다. 훑쳐보시면 안돼요. 석호는 농담을 던졌다. 그는 긴장한 나를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의 몸을 닦았다. 다리가 오므려져 있어서 성기를 씻기기 쉽지 않았다. 아이 참. 석호는 생각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자 멋쩍게 웃었다. 눈을 감고 숨을 내쉬어 봐요. 나는 그 앞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늉을 했다.

목욕을 마친 그는 다시 기어서 소라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기어갔다. 미처 닦지 못한 물기가 바닥에 묻었다. 나는 옆드린 채로 그의 뒤를 느리게 쫓아가며 바닥을 닦았다. 두 사

람은 누웠고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내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소라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석호는 소라의 이마에 축축하게 붙어있는 머리칼을 넘겨주었다. 그녀의 얼굴이 오롯이 드러나자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은 간혹 소라의 이마에서 이탈했고 나는 그의 손가락을 잡아서 그 대신 소라의 머리를 넘겨주었다. 그는 레이스로 덮여 있는 소라의 사발 같은 가슴을 쳐다봤다. 나는 석호의 의지를 읽기 위해 말없이 그를 살폈다. 그는 상체를 일으켜 소라의 레이스 치마를 올렸다. 나는 소라에게 양해를 구하고 레이스 옷을 벗겨주었다. 석호는 상체를 움직여 그녀의 위로 올라갔다. 미리 준비한 콘돔을 석호의 성기에 씌었고 두 사람은 삽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우리 세 사람은 땀에 흥뻑 젖었다. 향초가 거의 다 탈 무렵이었다. 나는 그들의 요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한참동안 말이 없었다.

불을 켤까? 아무 대답 없는 그들을 기다리며 비닐장갑을 벗었다. 그들 가까이 다가가서 이마와 어깨를 손으로 쓸어주었다. 두 사람의 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언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소라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했다.

나는 그들을 두고 바깥으로 나와 놀이터 그네에 앉았다. 땀이 마르며 으슬으슬 추웠다. 이마에서 시작한 한기가 목을 타고 내려왔다. 방금 전까지 그들을 돕던 물건들이 가방에 아무렇게나 담겨 있었다. 나는 가방을 꼭 끌어안고 밤하늘을 쳐다봤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이 보였다. 그것이 인공위성이 밝힌 가짜별일지라도 김 사장이 한 말을 믿고 싶었다.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말이다. 나는 그날 저녁 김 사장을 만났고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몸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상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어요.” 어렵게 꺼낸 말이었다.

“성격 때문이 아니고요?”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만만치 않아요.” 그는 내게 셔츠를 걷어 자신의 손목을 보여줬다. 궤양 자국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 줄 있었다.

“딱 세 번 밖에 안되는구만. 월.” 나는 그의 손목을 ‘찰싹’ 때렸다.

그를 만나면 무엇이든 가벼워진다. 그것이 평생을 간직해 온 굴레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그에겐 그런 힘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금요일 저녁 소라와 석호의 섹스를 도왔고, 김 사장 가게를 들러 퇴근했다.

소라는 임신을 원했다. 라벤더 향의 향초와 소라와 석호의 특별한 속옷을 구입한 날이었다. 소라의 배란일을 계산한 특별한 날이기도 했다. 해질 무렵이었고 나는 어느 때보다 긴장했다.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석호의 성기를 직접 소라의 질에 삽입하는 것을 도왔다. 우리 셋이 한참 몰입하고 있을 때 현관문 벨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렸다. 소라의 부모님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신발을 벗지 않은 채로 침실로 향했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그들을 막았지만 소라 아버지가 문을 잡아당겼고 안으로 들어갔다. 짧은 시간에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수 없었던 그들은 알몸인 채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소라 엄마는 흐느끼며 침대 주변에 떨어진 소라의 옷을 집어 들었다. 소라 아버지는 일그러진 얼굴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할 짓이 없어서 어린 것을...” 소라 아버지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나를 저주하는 모멸의 말을 고르려는 듯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소라 씨는 어리지 않아요.” 나는 소라의 부모를 침실 밖으로 밀치며 말했다.

“미친 짓이야.” 소라엄마는 흐느꼈다.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나는 장갑을 벗고 석호 옆에 있던 휴지를 치우며 말했다.

“하필이면. 한 명이라도 멀쩡해야지...” 돌아 누운 석호의 등을 쳐다보던 소라 엄마의 말이 똑 끊어졌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예요.” 나의 목소리는 노여움으로 떨렸다.

“병신, 욕감 하는 소리하고 있네.” 소라엄마와 나의 실랑이를 멈추게 한 건 소라 아버지의 한마디였다. 나는 석호와 소라를 쳐다봤다. 동그랗게 말린 석호의 마른 등에 척추뼈가 도드라졌다. 단단한 어깨근육이 어디론가 숨어버린 듯 했다.

소라의 부모는 나를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내 가방에 있던 물건을 하나씩 꺼내어 초록색 부직포가 깔린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물건을 허공에 흔들었다. 조롱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나는 고개 숙이지 않고 그의 행동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것은 김 사장이 가르쳐 준 방법이었다. 누군가 누명을 씌우거든 해명하지 말고 똑바로 응시하면 된다고. 소식을 듣고 달려 온 김 사장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나는 훈방조치로 풀려났다.

소라의 부모는 나를 격리시키려고 활동지원 중개센터에 민원을 넣고, 소라의 집을 지키며 나의 출입을 저지했다. 그러나 소라는 자살소동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저항했고 소라 부모의 노력은 무산됐다. 나는 다시 소라와 석호를 만날 수 있었다. 입소문은 빨랐다. 나는 두 쌍의 지체장애인 부부를 돕게 되었다. 그들은 정기적이지 않았고, 특별한 날 예약했다. 일주일에 평균 두 통의 의뢰전화를 받았고,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김 사장의 사무실을 빌려 장애인 성생활을 상담했다. 성인용품점에서 섹스보조용품을 구입하여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했으며 간혹 대여도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박스엔 어느덧 새로운 성인용품으로 가득 차서 수납공간이 부족했다.

“자, 시크릿박스.” 김 사장은 제법 큰 철제 박스를 건넸다. 내가 받으려고 하자 줄 듯 말 듯 장난치더니 함께 술을 마시면 주겠다고 농을 쳤다.

이렇게 추운데? 절기 중 가장 추운 소한이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이 나쁘지 않았다. 은근히 기대했던 마음을 들켜서 무안해서인지, 착각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인지 얼굴이 화끈거렸다.

우리는 포장마차가 있는 삼거리로 향했다. 싸라기눈이 흩날리며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는 멈춰서 내 어깨에 내려앉은 눈을 털어주었다. 포장마차 주인은 행여 우리가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릴까봐 조바심이 났던지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빠른 걸음으로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김 사장의 보폭에 속도를 맞췄다. 손님은 우리 둘뿐이었다. 김 사장은 내 머리와 손에 묻은 물기를 닦았다. 그리고 차갑게 굳어 있던 내 손을 잡은 잡고 얼굴과 목, 어깨와 손을 지그시 쳐다보았다. 그는 내 손을 자신의 몸으로 가까이 가져가더니 소매를 걸었다. 손등에서 팔목까지 엉겨 붙은 흉터가 드러났다. 김 사장은 자신의 손으로 내 흉터를 가볍게 덧그렸다.

“소피아 고무나무 이파리 같군요.” 그의 손길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식물을 관찰하는 사람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순간 내 몸을 표현하는 가장 생기 있고 아름다운 언어를 그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피부를 덮고 있는 윤기 나는 나뭇잎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어졌다.

그제야 어렴풋이 낫선 타인을 내 삶에 들여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아
른거리는 상대방의 모습, 친절하고 순해지는 마음, 공기 중에 섞인 냄새만으로 위로가 되고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리고 그의 경쾌한 걸음걸이와 나의 속살.

*

소라와 석호는 금요일 저녁이면 내게 어김없이 연락한다. 나는 생각한다. 부드러운 표면
에 흠집이 나서 제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덧대고 꾸미는 것에 익숙한 보통의
사람들이 켜켜이 쌓아놓은 자기들만의 사랑과 쾌락에 대해서. 그리고 흠집 난 몸에서 아
름다움을 찾는 소라와 석호, 나와 김 사장에 대해서 말이다.